

2007 PRI 총회, Integration & Engagement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지난 7월 3일과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PRI가 2006년 출범한 이후 첫 연례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례 총회에 200여 개 PRI 서명 기관에서 13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PRI의 활동을 리뷰하고 ESG이슈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관으로는 CalPERS, ABP, HERMES, USS, 뉴질랜드퇴직연금 등 asset owner인 대표적인 연기금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Innovest, EIRIS, Mercer Investment Consulting 등 ESG 리서치 기관들이 있다. 아마도 현재 지속가능투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작년 PRI 출범 이후 약 15개월간 PRI 서명기관의 수와 서명기관들의 운용자산규모가 기대이상으로 확산되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성공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지금부터는 이머징마켓에서의 PRI 확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 서명기관들의 PRI 도입 및 이행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PRI 사무국은 설명하였다.

이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투자의 실무적인 부분, 특히 인게이지먼트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속가능투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CEO의 의지, ESG 리서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는 등 PRI 원칙의 실행을 위한 실무적인 차원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PRI 인트라넷의 Engagement Clearinghouse을 이용, 서명기관간 정보공유, 공동 engagement 등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모두들 동의하였다.

과거 지속가능투자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투자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잡을 것인가, ESG 분석이 과연 펀드의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인가와 같이 지속가능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PRI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투자는 이미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았고 ESG 분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에서 그동안 많은 asset owner들이 이미 ESG 분석을 기업 분석에 통합된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Engagement 방침을 만들고 실행하는 등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2007 SRI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 자산운용사 및 리서치 기관 8개가 PRI에 가입하는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해외 지속가능투자의 역사에 비추어 국내 지속가능투자의 역사는 매우 짧고 아직까지 그 규모도 크지 않다. 비록 최근 일반인들의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와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서도 지속가능투자과 ESG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날로 높여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 해외에서처럼 ESG 이슈 분석의 통합과 활발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보기까지는 아직 올라가야 할 계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PRI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나라 지속가능투자 발전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2008년 6월 세계 전문가들과 한자리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년 동안 한국 지속가능투자에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6월에 많은 지속가능투자 전문가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지속가능투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